“부처님 도량서 새 출발 기약해요”

봉은사 10월 5일 출소자 합동전통혼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편과 사별 후 홀로 공사판에서 음식을 만들며 힘겹게 살아온 전희경 씨(가명 · 50). 그녀와 현재 그녀의 남편 양영석 씨(가명 · 51)의 이야기는 한편의 소설 같다.

양영석 씨는 사회부적응자였다. 힘들었던 젊은 시절 술로 달래다 보니 주사가 심해졌고, 결국 1992년 폭력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 몇 차례 수감생활이 반복되며 더 이상 오갈 곳 없던 그에게 2017년 겨울은 또 다른 기회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생활하며 금주와 함께 성실함을 찾은 그의 앞에 전 씨가 나타난 것이다. 성실한 그에게 마음을 연 그녀는 10월 5일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전통혼례식으로 시작을 알린다. 과거를 뒤로 서로의 인간미에 끌린 이들은 부부로서 새 출발을 부처님께 고한다.

양 씨는 “새 삶으로 출발하게 해준 공단과 봉은사,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명이 바뀐 저에게 새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제 나눔을 실천하며 주변도 돌아볼 수 있는 이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범률은 22%에 달하지만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작은 관심으로 수혜를 받은 이들의 재범률은 1.5%에 불과하다. 범법의 과거에서 벗어나 따뜻한 관심이 이들에게 미칠 때 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자비의 결혼식을 열어 눈길을 끈다. 부처님 품에서 불자대중이 축복하는 가운데 가정을 일궈 사회의 일원으로 새 출발하는 자리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5일 오후 2시 미륵대불 광장에서 ‘제33회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통혼례’를 개최한다. 이번 법무보호대상자 합동전통혼례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가 후원하고 한국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이날 합동전통혼례에서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8쌍이 부부의 연을 맺는다. 혼례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봉은사 사부대중 및 보호위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혼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이들에게 전통혼례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찾고, 전

법무보호공단, 서울시와 협력
출소자 8쌍 전통혼례식 올려
불자 동참하는 축제로 승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네요”

통의 얼을 되새김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참가자들의 사연도 다양하다. 앞서 주폭으로 형을 살았던 양영석 씨(가명)와 함께 살인으로 18년간 형을 살고 나와 이를 이해해준 현재 아내와 세 자녀를 키우는 김지훈 씨(가명),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6개월 형을 살고 나온 임정혜 씨와 이를 지켜 준 그녀의 남편 등이 참여한다.

이들을 위해 결혼식도 봉사참여 활동이 제한적인 현대식 예식과는 달리 가마꾼, 수모, 기럭아범, 초롱동이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힘을 더한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전통 혼례를 통해 구금으로 인한 한 때의 가정해체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라며 “전통혼례와 함께 출소자들이 불교의 자비정신과 전통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치 있는 행사에 봉은사가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나눔을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 함께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기 혐의로 6개월간 형을 산 임정혜 씨(가명)는 “전통혼례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주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전통혼례가 이렇게도 즐겁고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며 “저의 인생2막을 열게 해준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살겠다. 또한 혼례장소인 봉은사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석보상절 주해본 완간 기념 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10월 5일 국회중앙도서관서

‘572돌 한글날’을 맞아 〈석보상절〉 간행의 의미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10월 5일 오후 1시 국회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성격과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현전하는 〈석보상절〉 10권에 대한 주해본 완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동국대불교학술원은 국어학자와 불교학자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석보상절〉 번역과 주해 작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번역자 구성에서부터 번역방식, 출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어학 주해자로 학계를 대표하는 중진급 교수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언어감각을 가진 신진 연구자를 고루 선정하여 의뢰했다. 불교학 주해자 역시 학계의 중견 연구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학계의 연구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학술적 의미와 대중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불교계에서 한글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확인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 시작은 정우영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의 ‘〈석보상절〉 주해본 간행의 성격과 가치’ 기조강연으로 알리며, 5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주제발표로는 △민순의 한국종교문화연구소 교수의 ‘세종 · 세조대 왕실동향과 〈석보상절〉 간행’ △김기종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교수의 ‘〈석보상절〉의 저경에 관한 검토’ △최기표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의 ‘〈석보상절〉 불교주해의 성격 및 가치’ △이병기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석보상절〉 국어 주해의 성격 및 가치’ △동국대 불교학술원 효신 스님의 ‘〈석보상절〉의 국어교육적 가치와 활용’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시대 불교계가 한글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해 왔는지, 현대어역을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를 우리시대에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성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행자교육 교재 ‘불교한자입문’ 발간

반복해 쓰며 익히는 방식

행자들과 초심 불자들에게 유용한 불교 한자 입문서가 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행자들이 필수 불교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불교한자입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초발심 수행자가 기초적인 불교 한자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한자입문〉은 글자 수에 따라 한 글자에서 일곱 글자 단어까지 정리했다.

책은 2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 뜻을 설명하고 2장에서 쓰기를 연습한다. 또한 획순에 따라 반복하여 쓰는 동안 자연스럽게 한자를 익히는 방식이다.

교육원은 “〈불교한자입문〉은 출가한 행자들 뿐만 아니라 초심 불자들까지 고려하여 기획됐으며, 9월부터 출가하는 행자들에게 지급돼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추후 초심 불자들도 서사(書寫) 수행을 위한 용도로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 위한 불교史 교양도서 보급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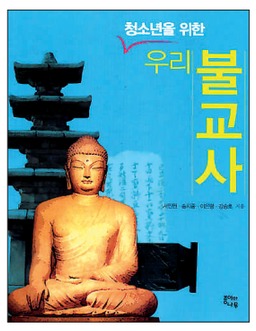
불교사회연구소,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 펴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불교역사를 정리한 교양도서가 발간됐다. 교과서를 집필하고, 직접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직 중 · 고교 교사들이 저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27일 불교역사 입문교양서 성격의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종이와 나무) 발간을 알렸다.

이 책은 2016년 4월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에서 사업진행을 의결하며 추진된 것으로, 집필은 서인원(진선여고 수석교사) · 송치중(도선고 교사) · 이은령(경기도 광주중앙고 교사) · 강승호(과천여고 교사) 등 현직교사들이 맡았다.

또한 화엄탑사 주지 명법 스님,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의 원고 감수,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윤문작업을 거쳤다.



책은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독립운동까지 2600여 년의 역사를 각종 사진과 도표, 그림 등과 함께 담았다.

무엇보다 불교 미화를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 또한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석 · 박사학위를 받은 검증된 필진으로 공신력을 갖췄다.

이에 대학진학 등을 고민하는 수험생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연구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기존 불교사 서적들이 불교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역사를 방편으로 취하는 형식을 택했다면, 〈청소년을 위한 우리불교사〉는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역사를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복잡한 설명을 줄이고, 역사적 사실 전달에 심혈을 기울였다. 따라서 책 이름과 별개로 불교초심자나 불교사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불교사회연구소장 주경 스님은 발간사에서 “책 발간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한국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진과 그림을 풍부하게 첨부하고, ‘더 알아보기’ 코너를 곁들여 어려운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청소년들이 불교역사 상식을 갖추고, 불교사상과 문화까지 이해해 풍부한 교양을 갖추는 것은 물론, 대학진학에도 도움이 되도록 역사 선생님들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도 힘 결집해 종단 중흥 나서자”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법회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이 제26대 총무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종단 중흥을 선포했다. 태고종은 9월 28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편백운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종단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종단을 안정시킨 것은 집행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종단의 안정된 기조 위에서 새로운 태고종을 향한 비전을 실천하는 길만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 우리 종단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채 때문에 지난 10년간 종단은 내홍과 침체 그 자체였다”며 “다행히도 부채청산과 종단재산 환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법인의 종단 귀속으로 종단안정과 발전의 추동력을 갖게 되었다. 종단화합을 위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을 잊지 않을 것이며, 애종애교하는 종도들에게는 하등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종도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